회원사동정

포스코

* LG전자와 냉연강판 MOU 체결 *

포스코는 LG전자와 내년에 12만톤의 냉연강판을 공급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제품 수급을 이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포스코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 최고 가전용 강판공급사의 위상과 국내 가전사와의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오는 2010년 가전용 냉연강판 200만톤 공급체제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질 방침이다.

이날 포스코는 LG전자 창원공장에서 디지털 가전사업본부와 내년에 CG-EG-HG-CR-PO 등 5대 냉연제품 12만톤을 안정적·지속적으로 공급,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 후판 전용 2호 로로선 진수 *

포스코와 일신해운은 중국 장쑤성 징장시에서 후판전용 2호 로로선(RO-RO : Roll On Roll Off) 진수식을 가졌다.

"일신프린세스"라 명명된 이 로로선은 향후 마무리 의장공사를 마친 후 해상 시운전을 거쳐 12월 중 취항할 예정이다. 이 로로선의 제원은 전장 120m, 폭 26m로 평균 10노트의 운항속도를 낼 수 있다. 또한 1항차에 후판 제품 250톤이 적재된 카세트 20개를 동시에 실을 수 있다.

일반 선박은 철강제품 선적 또는 하역 시 크레인을 이용해 제품을 하나하나 싣고 내리나, 로로선은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대형 카세트에 얹고 이송차량이 선박 내부에 들어가 이를 선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품을 싣고 내리는 횟수를 줄여 운송품질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전용 수송선이다.

이번에 진수식을 가진 후판전용 2호 로로선은 앞으로 포항제철소~현대중공업~마산유통기지 구간을 연속 운항하여 연간 약 65만톤을 수송할 계획이다.

일반선의 1항차당 운항시간은 9일인데 반하여 후판전용 2호 로로선은 2일로 7일이나 단축되어 물류비가 대폭 절감된다. 또한 고객사가 요구하는 제품을 선별 상차해 운송함으로써 고객사의 보유재고를 크게 감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포스코는 현재 운항 중인 후판전용 1호 로로선 "동방에이스"와 이번 후판전용 2호 로로선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전략제품인 TMCP강재의 증산에 대비하여 최상의 운송품질 제공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물류장 설비 개선과 운송품질 평가활동으로 타 제품의 운송품질 향상에도 한층 매진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 초대형 해양설비 명명 *

현대중공업이 영국 BP사로부터 수주해 제작한 초대형 해양설비인 "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설비)" 명명식이 해양공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설비는 서아프리카의 앙골라 플루토니오 해역에 설치될 대형 해양설비로, 앙골라 석유성 장관 부인인 마리아 여사에 의해 "그레이터 플루토니오"로 명명되었다.

플루토니오 FPSO는 현대중공업이 지난 2004년 1월 영국 BP사로부터 약 3억 4천만불에 수주한 것으로, 자체 총 중량만 8만톤이고 재화중량이 36만톤에 이르는 대형 설비다.

FPSO는 부유·저장기능을 하는 하부 선체구조와 원유의 생산·처리기능을 하는 상부설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BP사의 요청으로 이 회사 조선사업본부와 해양사업본부가 각각 입찰에 참여해 제작을 담당하였다.

플루토니오 FPSO는 길이 310미터, 폭 58미터, 높이 32미터 규모로 1일 2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 정제할 수 있으며, 총 200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일종의 해상 정유공장으로 120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설비는 대형 유전이 한창 개발 중인 서아프리카의 앙골라 루안다 북서쪽 175km지점 수심 1천300미터 플루토니오 해상에서 원유 생산 및 저장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 사상 최대 16억불 해양공사 수주 *

현대중공업이 해양설비 사상 단일 계약금액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사 수주에 성공하였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중동 아랍에미리트의 합작석유회사인 아드마옵코와 총 공사금액 16억불 규모의 해양설비 공사에 대한 LOA (Letter of Award, 수주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 공사는 아부다비 인근 해상의 움샤이프 유전지대에 총중량 4만 톤의 고정식 플랫폼 3기와 해저파이프라인 및 브릿지 등을 2010년까지 설치하는 공사이다.

현대중공업은 05년 8월 입찰서 제출 이후 1년여 간 UAE 현지 업체인 NPCC사와 프랑스 해양 전문회사의 컨소시엄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설계에서부터 구매, 제작, 설치, 시운전까지 공사 전체를 수행하는 일괄 도급계약방식으로 수주에 성공했다.

UAE는 OPEC 생산규모 4위의 중요산유국으로 이번 움샤이프 공사가 해양 설비로서 사상 최대일 뿐 아니라 외국회사에게 발주한 최초의 사례로서 현대중공업의 단독 수주 성공은 향후 중동 해양설비 시장 개척의 중요한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그동안 해양설비 수행실적과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중동지역의 대규모 후속 공사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태양광설비 5천만불 수주 *

현대중공업이 최근 스페인에서 5천만 달러 상당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수주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솔라파크(태양광 발전단지)인 스페인의 21MW급 솔라파크의 1단계 10MW급 공사에서, 200W급 대형 태양광 모듈 5만개를 약 5천만 달러에 공급하기로 스페인 발전사업자와 계약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내년 하반기에 있을 이 솔라파크의 2단계 공사 수주도 준비 중이다.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수출하는 태양광 모듈은 태양광을 흡수해 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태양전지와 함께 태양광 발전의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는 제품이다.

태양광 발전이란 태양전지 소자를 이용하여 태양광을 바로 전기로 변환시키는 것으로, 연료비가 들지 않고 대기오염이나 폐기물 발생은 물론 기계적 진동과 소음이 없는 무한정 에너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08년부터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본격적으로 이행될 예정이고, 석유 등 화석연료의 고갈 우려가 점차 현실화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현대중공업은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8월 태양광 모듈(전기생산 패널) 생산공장을 설립해 제품을 생산해 오고 있다.

두산중공업

* 미 GE와 발전설비 장기공급계약 체결 *

두산중공업이 세계 최대의 발전설비 회사인 미국GE사와 1억8,700만 달러 상당의 발전설비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중공업은 미국 GE사와 화력발전소용 증기터빈 제품 및 발전기 등 각종 발전설비를 2008년 말까지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중공업이 이번에 GE로부터 수주한 제품은 미국에 건설 예정인 800MW급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설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두산중공업은 이들 제품을 창원 본사에서 자체 기술로 제작해 내년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최근 미국이 전력난 해소를 위해 대형 화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이번 수주를 계기로 미국 화력발전소 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발전BG장은 "두산중공업은 세계 최대 발전설비 회사인 GE와 오랜 기간동안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어왔다"며, "이번 계약은 터빈발전기 공장의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앞으로 해외 발전설비 시장 진출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 세계 최대 담수증발기 출하 *

두산중공업은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사우디아라비아 쇼아이바 3단계 담수플랜트용 담수증발기 1호기 제작을 마치고 최근 출하했다.

이번에 출하한 담수증발기는 쇼아이바3단계 플랜트에 공급하는 증발기 12기 중 첫 출하 분으로, 폭 27.5m, 높이 12.8m, 길이 114m에 전체 무게가 3,440톤에 달하며 1기당 담수생산량이 16.2MIGD로 세계 최대 규모이다. 이는 지난해 두산중공업이 쿠웨이트 사비야 플랜트에 출하한 담수증발기보다 폭 2m, 높이 3.3m, 길이 10m가 더 큰 것이며, 1기당 담수생산량도 약 30%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이번에 출하한 담수증발기를 자체 개발한 원모듈 공법의 적용과 제작공정 단축으로 세계 최단 기간인 4개월 만에 제작과 검사 과정을 마쳤다. 창원공장에서 완전조립상태로 출하된 담수증발기는 약 25일간의 해상 운송을 거쳐 오는 10월 중순경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쇼아이바 3단계 플랜트에 들어가는 12개 증발기가 모두 완성되면 총 담수생산량은 194 MIGD로 하루 300만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담수플랜트가 탄생하게 된다.

쇼아이바 3단계 프로젝트는 지난해말 두산중공업이 8억5천만달러에 수주한 세계 최대의 담수 플랜트로서, 두

산중공업은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제작 설치, 시운전에 이르는 전과정을 EPC(Engineering & Procurement, Construction) 방식으로 일괄 수행해 오는 2009년 6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제다시 남쪽 110km 지점에 건설되는 쇼아이바 3단계 프로젝트는 하루 담수 생산량88만톤의 담수 플랜트와 917MW 규모의 화력발전소 3기를 동시에 건설하는 공사로, 여기서 생산된 담수와 전력은 이슬람 최고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 지역에 공급된다.

* 신고리 원전 3,4호기 주기기 수주 *

두산중공업은 신고리 3,4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의 핵증기 공급계통과 터빈발전기 주기기를 자체 기술로 설계,제작해 공급하게 된다.

신고리 3,4호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소재 기존 신고리 1,2 원자력발전소 인접부지에 위치하게 되며 오는 2013년 9월과 2014년 9월에 각각 준공 예정이다. 신고리 3,4호기는 국내 기술진에 의해 독자적으로 개발된 신형 원자로 설비 모델인 APR1400(Advanced Power Reactor 1400)이 처음 적용되는 차세대 원전으로서, 기존 1000MW급 한국표준형원전보다 발전용량이 향상된 1400MW급이며, 안전성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두산중공업이 이번에 공급하게 될 원자로와 증기발생기는 고온, 고압, 방사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설계, 제작기술을 요하는 원자력발전소의 핵심설비로서, 제작기간만 약 4년이 소요된다. 터빈발전기 역시 고도의 소재제작 능력, 가공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설비이다.

현대자동차

* "The LUV 베라크루즈" 탄생 *

럭셔리 브랜드 이미지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개념의 LUV를 출시하기 위해 현대차는 2004년 EN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개발에 착수했으며 26개월간 총 2,229억원을 투자해 "베라크루즈"가 새롭게 탄생하게 됐다.

베라크루즈는 BMW X5, 렉서스 RX 350 같은 해외의 유명 SUV와 경쟁하게 되며 국내시장에서는 13일부터 판매를 개시하고 북미를 제외한 기타지역에는10월부터, 북미에는 12월부터 수출을 시작한다.

현대차가 국내 최초로 독자개발한 세계최고수준의V6 3.0 승용디젤엔진은 240마력의 강력한 파워와 1등급 연비를 실현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탑재한 6단 자동변속기는 우수한 연비와 출력을 자랑하며 무교환 변속기오일이 적용돼 반영구적인 내구성을 지니고 있다.

소음 및 진동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전달을 최소화해 고급세단 수준의 정숙성을 확보했으며 노면상태나 주행상황에 따라 제동력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전자식 4WD 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주행안정성을 갖추도록 설계했다.

운전자는 물론 3열시트에 앉은 승객까지 편안하게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도록 3열 모두 풀사이즈의 시트를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에어 콘트롤 시스템도 실내 전체를 가장 최적의 상태로 만들 수 있도록3개의 구역으로 구분해 각각 독립적으로 온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베라크루즈는 300X, 300VX, 300VXL 등 3가지 차종에 총 6가지의 세부트림을 운영하며, 신규 컬러인 슬릭 실버, 다크 브론즈 컬러를 포함한 8가지 종류의 바디컬러와 3가지 종류의 내장컬러를 적용하는 등 고객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혔다. 특히 프리미엄모델은 최고급 가죽소재의 브라운 투톤시트를 적용해 명품이미지를 부여했다.

기존의 SUV와는 차별화된 특별 무상정비 서비스도 제공해 고객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차량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부품 3년 6만km, 동력계통 5년 10만km로 무상보증기간이 확대됐고 차량 출고 후 주행거리에 따라 차량점검 및 엔진오일 무상교환 서비스를 펼치는 플래티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형『투스카니』 출시 *

현대자동차는 국내 유일 스포츠 카인"투스카니"의 디자인을 대폭 개선한 신형"투스카니" 모델을 계약 및 출고 개시한다.

신형 "투스카니"는 차량 디자인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과 함께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세부 변동 내역으로는 속도감을 강조한 최신 디자인의 헤드 램프, 공격적이고 개성적인 스타일의 신규 휠 리어 램프, 리어 범퍼 및 머플러 등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스포츠카의 날렵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한 후면부 등 공격적이고 세련된 외관 디자인을 연출했다.

또한 MP3 기능을 갖춘 6매 CDC, JBL 사운드 시스템 등 최고급 오디오 사양을 갖춘 프리미엄 사운드 팩, 스포티한 감각의 레드 칼라 버켓 시트가 적용된 레드 팩 등 고객 선호 사양 반영한 다양한 팩키지 모델을 운영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신형 투스카니는 더욱 과감해진 외관과 다양한 패키지 운영 등으로 국내 유일의 스포츠카

로서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 차세대 명품 대형트럭『트라고』출시 *

현대자동차가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대형트럭 "트라고"를 선보이며 대형트럭의 국내시장 수성과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에 나선다.

"트럭의 명품시대 선언"이라는 슬로건 아래 탄생한"트라고"는 현대차 대형 트럭의 독자적인 명품브랜드 및 표준모델로 강력히 육성해, 상용부문에서도 글로벌 톱 메이커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트라고" 개발에는 총 800억원의 연구비 및 3년의 개발기간이 소요됐으며, 개발 초기단계부터 대형트럭 고객의 요구와 시장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해 세계 최고수준의 제품경쟁력, 최고 수준의 고객수익율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새롭게 개발된 트라고는 연비 및 동력성능, 승차감 및 내구품질 등에서 유럽 수입차 이상의 제품경쟁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97개 부품의 내구성을 증대하고 적재량, 등판능력, 부품교환주기 개선 등으로 최고 수익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운송시스템을 갖췄다. 또한 엔진, 서스펜션, 변속기, 제동장치 등이 최첨단 전자장치를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 최적의 주행성능 및 제동성능, 자세안전성과 운전 편의성을 제공해준다.

현대차 관계자는 "트라고는 세계 최고수준의 제품력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개발됐으며, 트럭 수준을 넘어서는 승차감과 안정성, 연비와 동력성능, 내구성과 각종 편의사양에 이르기까지 대형트럭 고객의 요구조건을 고루 갖춘 고객지향적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

* 사상 최고가 선박 수주 *

삼성중공업은 유럽 선사로부터 드릴쉽 1척을 6억3,100만 달러에 수주했다. 한화로 6,035억원 규모에 달하는 이 선박은 국내 조선업계 사상 최고가 선박이다. 종전 최고 기록은 삼성중공업이 수주했던 5억8000만달러짜리 드릴십으로, 삼성중공업 스스로 세웠던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셈이다.

6억3100만달러는 30만톤급 초대형유조선 5척을 건조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며, 조선업계 최고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불리는 LNG선 1척의 가격보다도 3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드릴십이란 고정식 해상플랫폼 설치가 불가능한 심해지역이나 파도가 강한 해상에서 원유와 가스 시추 작업을 할 수 있는 선박 형태 이동식 시추설비다. 이번에 수주한 드릴십은 해수면에서 밑으로 11㎞까지 시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전국기능대회 3연패로 조선기술 최고 확인 *

삼성중공업은 경남창원에서 폐막된 제4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산업체 근로자부문 종합우승인 금탑을 수상함으로써 「3년연속 종합우승」의 대기록을 수립함은 물론, 제조업계 최고의 현장기술수준을 재확인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3연패를 통해 삼성중공업은 세계 최고의 현장 기술인력 확보, 고품질의 선박품질수준 달성은 물론, 선박 건조기술에 대한 선주의 신뢰제고로 향후 대량 수주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근로자 평균연령이 36세로서 업계에서 가장 젊어 당분간 기능경진대회에서 삼성중공업의 독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들 우수인력들이 건조현장의 주역으로 성장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로 15회째 열린 삼성중공업의 사내기능경기대회는 90년부터 동종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직종별로 최우수상을 받은 직원 13명에게는 노동부 장관 표창과 특진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지난 86년부터 시작한 다기능화 교육은 근로자 본인의 주직종 뿐만 아니라 선공정과 후공정에 배치되어 있는 또 하나의 직종을 자신의 현재 직종 수준만큼 기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다기능화를 통해 근로자들은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매너리즘에 빠졌을 경우 타직종으로 업무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근무만족도가 보다 향상되었으며 회사는 전후공정을 두루 경험해 본 근로자들이 공정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하여 품질향상과 함께 인력배치와 운용에 효율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기술연수원은 사내협력회사 기능인력까지 양성하고 협력회사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훈련도 실시하는 등 삼성중공업과 협력회사간의 상생을 위한 파트너쉽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 창사이래 최초 수주 100억 달러 돌파 *

대우조선해양이 LNG선 1척 등 총 3척의 선박을 수주하며 창사이래 최초로 수주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대만의 TMT사로부터 LNG선 1척을 수주했다. 또 그리스의 브레이브사로부터83,000㎥급 대형 LPG선 2척을 수주했다. 이들 선박의 총 가격은 약 4억 3,000만 달러에 달하며,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LNG선은 2010년 8월, LPG선은 2010년 1월까지 모두 인도할 예정이다

이번 수주로 대우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총41척, 102억 달러 상당의 선박과 해양플랜트를 수주함으로써 사상 최대였던 작년도 68억달러의 수주기록을 갱신했다. 수주잔량은 약 230억 달러로 향후 3년치 이상의 안정적인 조업물량을 확보했다.

금액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대우조선해양은 LNG선 14척, 초대형유조선(VLCC) 11척, 초대형컨테이너선 4척, 드릴쉽 3척, 해양플랫폼 4기 등을 수주해, 고부가가치선 비중이 업계 최고인88%에 달한다. 척당 평균 수주 단가 역시 업계 최고인 2억5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이 지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 선별수주 전략의 결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올들어 총7기 42억 3천만 달러 어치의 해양플랜트를 수주해 작년 수주 실적인14억 7천만 달러를 3배 가까이 뛰어넘었다. 세계 해양 플랜트 사상 한해에 40억달러 이상을 수주한 것은 대우조선해양이 처음이다. 또 고부가가치 선박의 대표격인LNG선은 올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14척을 수주했으며, 수주잔량도 38척으로 세계 최대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 사상 최대규모 해양설비 수주 *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굴지의 석유회사인 셰브론사로부터 약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해양 설비를 수주했다. 지난해 2월 약 1조원 상당의 FPSO를 수주해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한지18개월만이다.

대우조선해양은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고정식 원유 시추생산 설비1기를 셰브론사의 앙골라 자회사인 카빈다 걸프 오일 컴퍼니로부터 수주했다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해양 설비는 계약 금액뿐만 아니라 그 크기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신조 발주된 해양 플랜트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며, 이 설비는 총 무게만 8만5천여톤 규모에 달한다.

수심 400여m의 바다에 5만5천여 톤의 타워형 하부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시추와 생산을 할 수 있는 3만여 톤 규모의 상부구조물이 설치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해양 설비를 2009년 5월 완공할 예정이다. 완공 후 이 설비는 아프리카 앙골라에 위치한 톰부아 란다나 해양유전지역에서 하루 약13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게 된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이 설비를 설계에서부터 생산 설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자체 기술로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턴키방식의 수주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이 셰브론사에 인도한“벵귤라 빌리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보여준 기술과 프로젝트 관리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벵귤라 빌리지 프로젝트는 이번에 수주한 플랜트와 형태는 비슷하지만 규모는 조금 작은 해양 설비다

대우조선해양 해양사업본부장은“대우조선해양은 가장 많은 시추선을 건조했고, 세계서 최대규모의 부유식 시추 생산설비인 BP썬더호스를 성공적으로 건조해 인도했으며,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FPSO도 현재 건조 중에 있는 등 모든 해양설비 분야에서 최고의 기록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해양설비를 LNG선과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 대표 상품으로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

* 칠레 3.7억 달러 발전소 건설 *

포스코건설이 칠레에 3.7억 달러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민간발전사업자인AES Gener와 계약을 체결했다.

발전용량 240MW의 이 발전소는 산티아고에서 북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칠레의 유력 산업도시 벤타나스에 건설되며, 금년 12월 1일 착공해 2009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전력이 부족해 질 것으로 예상한 칠레의 국영 전력회사 디스코가 발전능력 확충을 위해 민간발전사업자인IPP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이 사업의 정보를 입수한 후 발주처를 수 차례 방문해 회사의 기술력을 적극 홍보한 끝에 정식 입찰참여통지서를 받았으며, 프로포잘을 제출한 후 세계 유수의 경쟁사와 경합 끝에 이번에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포스코건설은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사업의 발판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글로벌 전력회사인AES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중남미 발전플랜트 건설시장에 진출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송도 산업기술문화 복합단지 수주 *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테크노파크내 산업기술문화 복합단지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인천 송도국제도시2공구 테크노파크내 1만

7천여평의 부지에 기존의 갯벌타워, 시험생산공장동, 본부동과 연계해 지하2층, 지상6층~21층의 벤처업무빌딩 2개동을 신축하고 통합된 광장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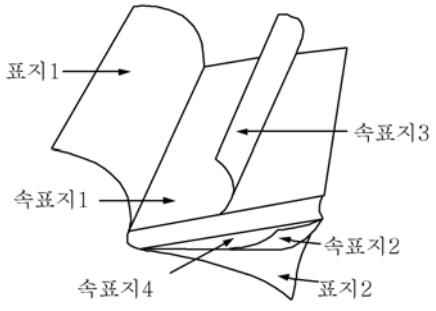
포스코건설은 송도의 바다와 갯벌이 새로운 창조의 땅으로 재탄생된다는 의미의 샛벌이라는 디자인 컨셉하에, 갯벌타워 등 기존 건물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일조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건물들을 균형있게 배치해 단지 전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벤처업무빌딩은 사무공간 외에 실내정원 및 아트리움을 계획하여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부서지는 파도이미지를 표현하는 독특한 설계를 통해 미래지향적 역동성과 상징성을 표현한다는 계획이다.

광고/회원사 소식 게재 안내 (042)828-6511～2

대한용접학회지 광고 게재료 안내

게재면수	필름규격 (A4)	광 고 료		
		1회 게재	색 상	흑 백
표 지 1	21×30cm	500,000원	칼 라	〃
표 지 2	〃	450,000원	〃	〃
속표지 1	〃	450,000원	〃	〃
속표지 2	〃	350,000원	〃	〃
속표지 3이후	〃	300,000원	〃	150,000원



* 기타사항 *

① 6회(1년분) 게재시 10%할인
(표지1,2, 속표지1제외)

② 광고필름 제작시 제작비 별도

③ 기사식 단색광고는 15만원
광고문의 안내(042-828-6511)

대한용접학회 입회원서

회원 번호	

성 명	한 글			영 문		
	한 자			주민등록번호	-	
근 무 처	주 소	[-]				
	직 장 명		부 서		직 위	
	전 화		F A X		e-mail	
자 택	주 소	[-]				
	전 화		F A X		H.P	

연 락 처	하나만o표	1. 직 장( ) 2. 자 택( ) 3. 휴대폰( ) **[우편물]** 1. 직 장( ) 2. 자 택( )
회원자격	하나만o표	1. 종신회원( ) 2. 정회원( ) 3. 학생회원( )
최종학력	하나만o표	**[졸업연도 :]** 1. 박사( ) 2. 석사( ) 3. 대학교( ) 4. 전문대학( ) 5. 기타( )
학위전공	하나만o표	1. 용접( ) 2. 금속/재료( ) 3. 기계( ) 4. 조선/항공( ) 5. 전기/전자( ) 6. 토목/건축( ) 7. 일반과학( ) 8. 기타( )
논 문 명	최종학위	
용접관련 자 격 증	모두 o표	국가 1. 기술사( ) 2. 기사( ) 3. 산업기사( ) 4. 기능장( ) 5. 기능사( ) 6. 기타( )
		KWS 7. 용접전문기술자( ) 8. 용접기술자1급( ) 9. 용접기술자2급( ) 10. 용접교사( ) 11. 용접지도자( ) 12. 용접검사자( ) 13. 용접사( ) 14. 기타( )
직 업	하나만o표	1. 엔지니어/회사원( ) 2. 개인사업( ) 3. 교수/교사( ) 4. 연구원( ) 5. 학생( ) 6. 기타( )
관련분야	순서대로 3개 선택 1,2,3번호 기 재	1. 금속재료( ) 2. 재료가공( ) 3. 조선/중공업( ) 4. 자동차( ) 5. 우주항공( ) 6. 용접기기( ) 7. 압력용기( ) 8. 박판기공( ) 9. 산업기기( ) 10. 용접보수( ) 11. 용접재료( ) 12. 건축/건설( ) 13. 전기/전자( ) 14. 시험/검사( ) 15. 용접역학/설계( ) 16. 교육( ) 17.공공기관( ) 18. 기타( )
관련재료		1. 철강재료( ) 2. 비철재료( ) 3. 스테인리스/내열합금( ) 4. 세라믹스( ) 5. 고분자재료( ) 6. 복합재료( ) 7. 기타( )
관련공정		1.아크용접( ) 2. 저항용접( ) 3. 고밀도용접( ) 4. 브레이징/솔더링( ) 5. 고상접합( ) 6. 표면개질( ) 7. 절단( ) 8. 용접제어/자동화( ) 9. 비파괴시험( ) 10.기타[ ]
학 회 지 논문심사	하나만o표	1. 원함( ) (분야 :) 2. 원하지 않음( ) ↘[가능한 상세히 제시 (예; 철강재료의 고온균열, 아크센서 등)]
희망지부	하나만o표	1. 동북지부[울산·포항·경북]( ) 2. 동남지부[부산·거제·마산·경남]( ) 3. 중부지부[서울·경기·강원]( ) 4. 서남지부[호남·충청·제주]( ) 5.기타( )
희망연구 위 원 회	하나만o표	1. 정밀접합연구위원회( ) 2. 용접강도연구위원회( ) 3. 용접공정연구위원회( ) 4. 고에너지빔가공연구위원회( ) 5. 기타[ ] 6. 원하지 않음( )

추 천 인	정 회 원	인	소 속		직 위	

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하고자 이에 입회원을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입 회 인 인

사단법인 대 한 용 접 학 회 장 귀 하

이 학회지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일부 재정지원에 의하여 발간되었음.

■대한용접학회 편집위원■

• 위 원 장 : 강정윤(부산대학교)
• 부위원장 : 이세헌(한양대학교)
• 이 사 : 김재웅(영남대학교) 박화순(부경대학교) 양영수(전남대학교) 연윤모(수원과학대학)
• 위 원 : 강남현(생산기술연구원) 강문진(생산기술연구원) 강봉용(생산기술연구원) 강성수(부산대학교)
김대순(현대중공업) 김대업(현대모비스) 김동섭(Shell Clobal Solution Inc.(USA))
김동진(두산중공업) 김명현(부산대학교) 김숙환(RIST) 김우식(한국가스공사)
김유철(일본 Osaka대학) 김응준(한밭대학교) 김일수(목포대학교) 김종훈(생산기술연구원)
김충명(POSCO) 김형준(RIST) 박재현(RIST) 박정웅(조선대학교)
박주용(한국해양대학교) 방국수(부경대학교) 배강열(진주산업대학교) 백응률(영남대학교)
서 정(KIMM) 석한길(삼척대학교) 송성진(성균관대학교) 안상곤(POSCO)
우인수(POSCO) 유효선(전북대학교) 이목영(RIST) 이제명(부산대학교)
이형근(한밭대학교) 장경호(중앙대학교) 장웅성(RIST) 정인철(두산중공업)
최우현(한진중공업) 한명수(대우조선해양) 한종만(대우조선해양) 홍순국(LG전자)

大 韓 熔 接 學 會 誌

第24卷, 第5號, 2006年 10月

발행인 박 동 환
대한용접학회장

편집인 강 정 윤, 박 화 순
이 세 헌, 양 영 수
김 재 웅, 연 윤 모

발행처 사단법인 대 한 용 접 학 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536-9
홍인 오피스텔 810호
우편번호 : 305-710
우리은행 : 025-079710-01-001
예 금 주 : 대한용접학회
Tel. : (042)828-6511, 828-6512
Fax. : (042)828-6513
http://www.kws.or.kr
E-mail : koweld@kws.or.kr

인쇄소 에 이 스
편집 · 출판디자인/그래픽디자인/마스터 · 옵셋인쇄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10-13
Tel : (042)257-1482
Fax : (042)242-1482
E-mail : ace1482@naver.com

JOURNAL OF
THE KOREAN WELDING SOCIETY
Vol. 24, No. 5, October 2006

Publisher Dong-Hwan Park
President of the Society

Editor Chung-Yun Kang, Hwa-Soon Park
Se-Hun Rhee, Young-Soo Yang
Jae-Woong Kim, Yun-Mo Yeon

Publication The Korean Welding Society
Hongin Officetel #810
536-9,Bongmyeong-dong, Yuseong-gu
Daejeon, Korea, 305-710,
Yuseong P.O.Box 104, Daejeon
305-710, Korea
Tel. : (042)828-6511, 828-6512
Fax. : (042)828-6513
http://www.kws.or.kr
E-mail : koweld@kws.or.kr

Print *ACE Visual Communications*
10-13, Jung-dong, Dong-gu, Daejeon
Tel. : (042)257-1482
Fax. : (042)242-1482
E-mail : ace1482@naver.com